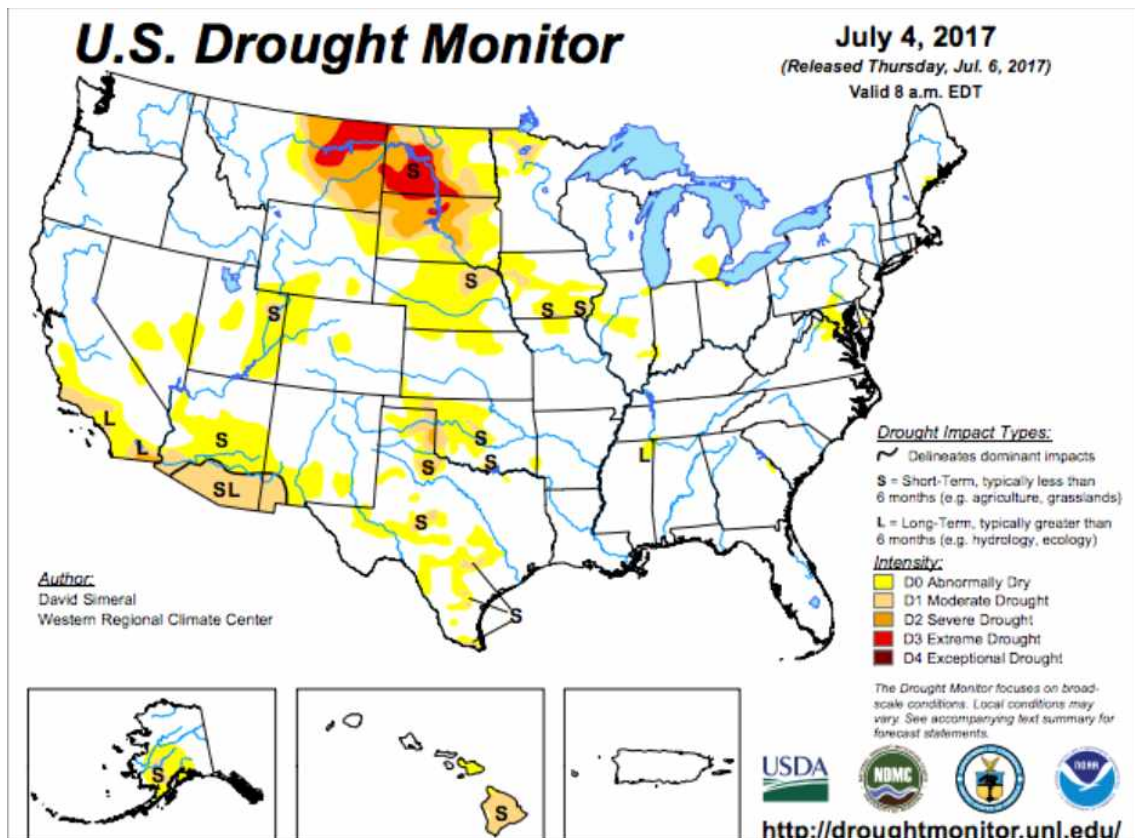


7월 1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28)

□ 미국 기후 현황(7/2~7/8)

북부 평원에서는 폭염이 찾아오면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높은 가운데 가뭄이 기승을 부렸다. 7월 5일에는 곳곳에서 낮 최고기온이 100°F까지 올랐다. 서부 전역에서도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월 10일에는 60개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평양 연안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대서양 연안의 중부, 남부 지역과 걸프 서부 지역에서도 더운 날씨를 보였다. 반면, 남부 평원과 중서부 등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남동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4인치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중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토양 수분 함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농업 현황 요약(7/3~7/9)

대서양 연안 지역과 걸프만 일대, 북부 평원, 서부 전역 등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씨를 보였다. 다코타, 아이다호, 오레곤, 몬태나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9°F 이상 높았다. 반면, 중부 평원에서부터 오하이오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오클라호마 남동부에서는 8인치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다. 북부 평원과 남서부 등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세계 기후 현황(7/2~7/8)

■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특히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프랑스 중부 및 동부, 독일, 폴란드, 체코 등에서는 2~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프랑스 남부와 북서부, 잉글랜드 남동부, 이탈리아 북부, 헝가리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가운데, 세르비아 북부와 이탈리아 Po River 일대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스페인 중부와 Danube River 일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지난 주 기승을 부렸던 더위를 식혀주었다. 유럽 전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의 여름작물 지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렸고, 우크라이나의 북부 및 중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수확을 앞둔 지역이나 막 파종을 마친 지역 모두에서 작물의 생육상황은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남부와 동부에서 2~24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북부와 중부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고, 옥수수, 대두 등의 수확 전망은 다시 어두워졌다. 특히, 기온도 평년에 비해 3°C 정도 높은 편이어서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몰도바 남부에서는 10~4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벨라루스에서도 8~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북부 평원 지역에서는 25~1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의 Liaoning, Jilin 등에서도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Heilongjiang에서는 1~2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일본 남부지역에서는 태풍 Nanmadol이 상륙하면서 혼슈 남부 지역에서 55노트 이상의 강풍이 불고 5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한반도 곳곳에서도 50~250mm 내외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이번 비는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겪기도 했다. 중국 북동부와 북한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6°C 정도 높았고, 일본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다. 중국 북부 평원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또다시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호주, 빅토리아 북부, 뉴사우스 웨일즈 남부 등에서는 5~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보타 북부의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뉴사우스 웨일즈 중부와 북부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주요 겨울작물 재배지역에서는 파종 이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남부와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지만, 서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낮았다.

■ 아르헨티나: 중부의 Buenos Aires, La Pampa 및 Cordoba 남부,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1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파종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보다 북부의 Santa Fe 북부에서부터 Formosa에 이르는 면화 재배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3~5°C 정도 높았는데, La Pampa와 Buenos Aires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C 후반에서 20°C 초반까지 올랐고, 북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올랐다. 남부와 북서부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6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70%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p 정도 앞서는 수치이다. Buenos Aires의 파종률은 48%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p 정도 앞서는 수준이다.

■ 브라질: 대부분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동부 해안의 Rio de Janeiro에서부터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중부와 서부, 북동부 내륙의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북동부, Bahia, Piaui, Maranhao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가까이 오르기도 했으며, 맑은 날씨 덕분에 2모작 옥수수 및 면화의 수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Mato Grosso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7일 기준 옥수수 수확률은 42%였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p 정도 앞서는 수치였다. 남부의 Minas Gerais, Sao Paulo 주변 지역 등에서는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Parana에서는 7월 초 밀 파종률이 9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p 앞선 수치였다.